



FINPORTS
Connect All Asset

Weekly Report

19.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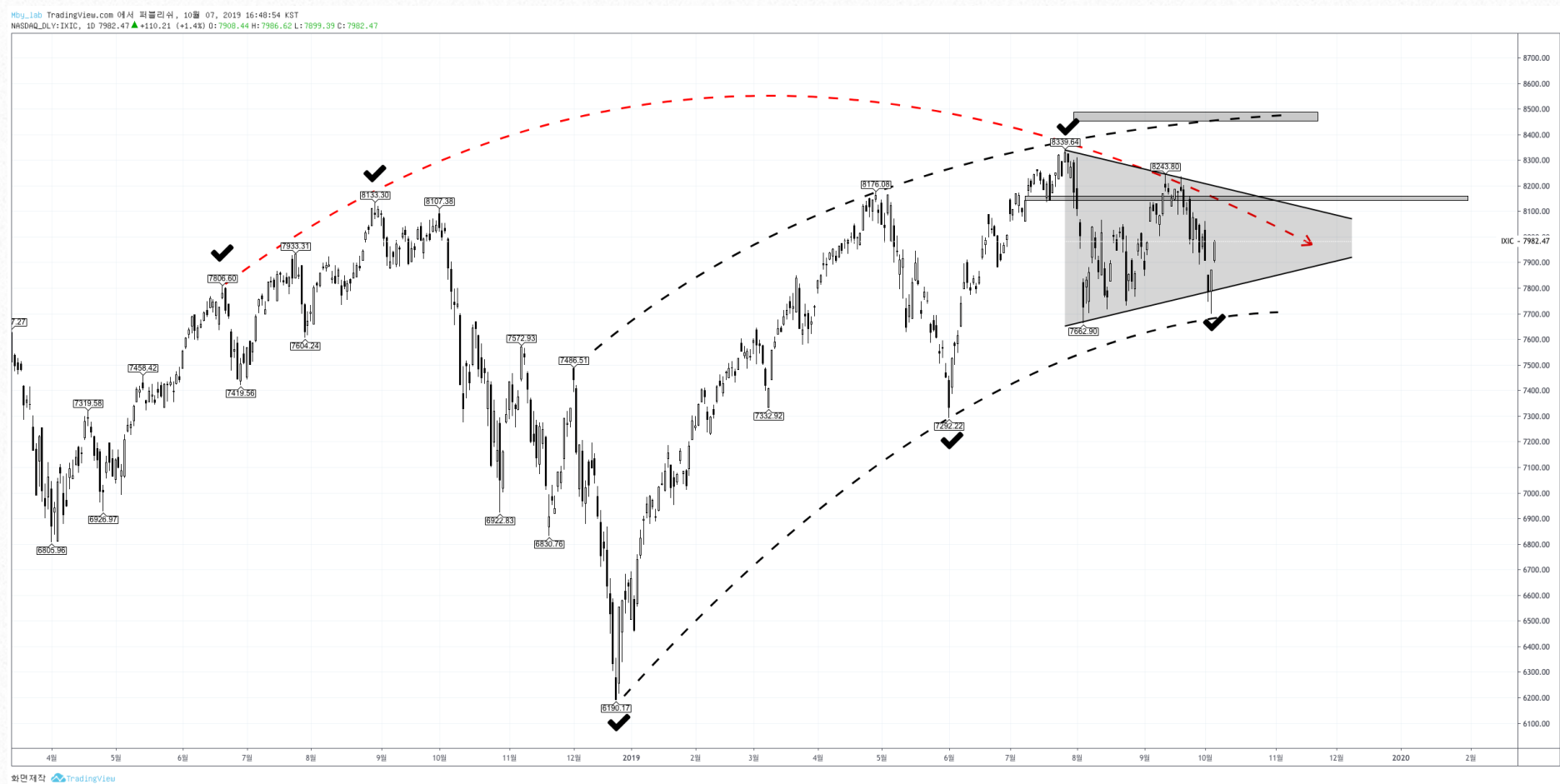
1 국가 주요지수와 주간이슈

국외 경제동향

“Ancora, Imparo”
– Michelangelo-



(1) 세계 주요 지수



1. 나스닥 Nasdaq

나스닥은 19.08.01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8,243.8P의 고점을 형성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 주었으나, 19.09.19 연준의 0.25%의 추가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이 위축되며, 7,908.68P에서 10월을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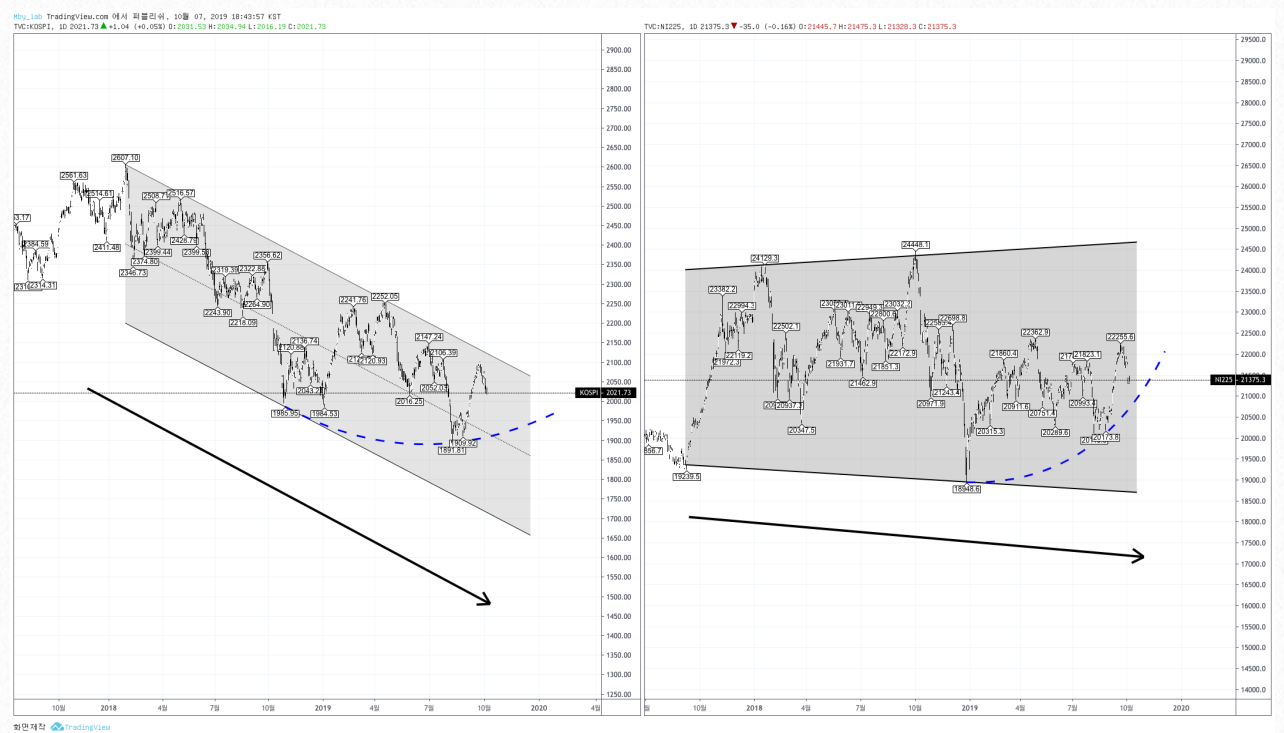
10월 2주차 나스닥은 18년 12월과 19년 6월에 형성된 지지선을 지지해주며, 갭상승과 함께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나스닥이 마주하고 있는 저항선은 빨간점선이 나타내고 있는 하락추세 저항선이며, 해당구간은 대칭 삼각형(symmetrical)패턴 저항선과 맞물리는 8,100 ~ 8,200P 구간으로 예상된다.

해당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추세 채널로 회귀 하며, 8,500P 저항선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2. 다우존스 / S&P500

다우존스와 S&P500 역시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존스는 대칭 삼각형 패턴의 저항선을 돌파 하였지만, 수렴 후 도달해야되는 목표가(약 15% 상승)을 도달치 못하였기 때문에, 지지선을 재확인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26,800P 저항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3. KOSPI / NI225

코스피와 닛케아 또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채널은 각각 하락(코스피) 횡보(닛케아)로 단기적 흐름과는 별개로 주가 변동폭에 따른 서로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는 뚜렷한 하락채널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8년 초 전환된 하락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닛케아의 경우 채널의 평균주가인 21,375P를 기준으로 완만한 주가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 원유



1. 금 (XAU)

2016 ~ 2019년 초에 걸쳐 형성된 어센딩 트라이앵글 저항선을 돌파한 금은 약 1,564P의 고점을 형성한 후 조정 중이다.

현재 금이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저항선은 2010 ~ 2013년도에 형성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약 3년간 형성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 저항선(1564.60P)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크 원유시설을 예맨이 드론을 통해 공격한 19.09.15일 직후 갭상승을 통한 저항선 돌파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돌파에 실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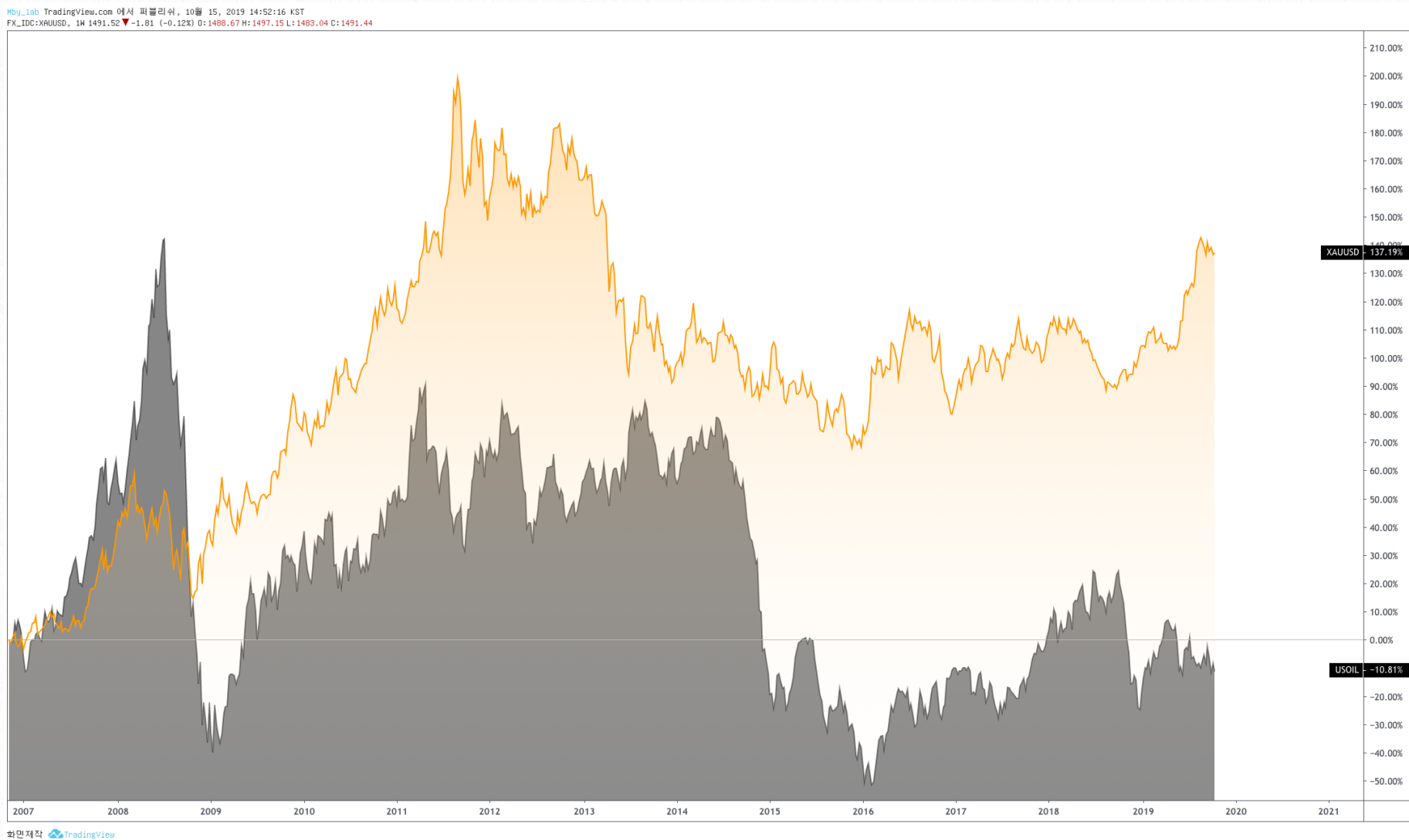
단기적 관점에서 금은 하락채널에 위치해 있으며, 약 1464.65P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지선은 2013년 부터 형성 해오다가 올해(2019) 중반 돌파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저항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원유 (WTI CRUDE OIL)

시간이 지날 수록 저가와 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주가 변동성 증가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수렴하고 있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지지선 테스트가 끝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원유는 51P 부근을 지켜주며, 반등의 움직임은 보여주었으며, 이 움직임은 최대 56P 저항선에 도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저항선은 18년 말에서 비롯된 두터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을 돌파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1년동안 진행된 커다란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저항선 돌파로 평가 받기 때문에, 더 큰 상승으로 해석하는 분석가가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드 캣 바운스의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기에,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3) 주간 경제이슈



1. ‘사우디’ 예맨의 드론공격으로 인한 생산량 50% 감소 (19.09.15)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대규모 원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

2. 이란 유조선 폭발 (19.10.12)

-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상에 있던 유조선이 2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저장탱크 훼손과 함께 원유가 바다로 유출 되었다.

3. 연준 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발표 (19.10.09)

- 연준이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단기물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적 금리인하세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 (19.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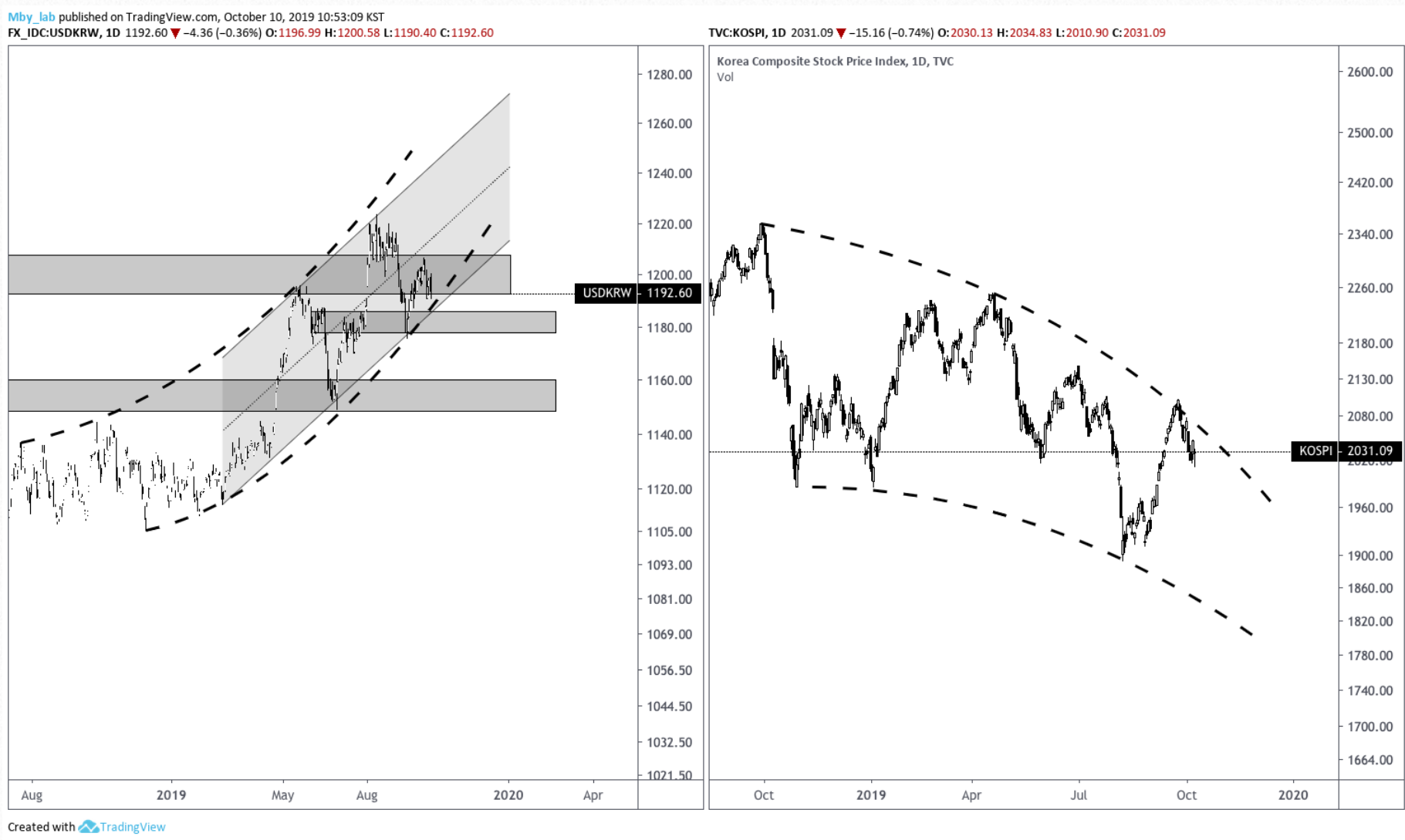
2 국내 경제동향 과 주간이슈

국내 경제동향

““Ancora, Imparo”
– Michelangelo-”



국내 경제 이슈



1. 달러 / 원화, 코스피 (US Dollar / KRW, KOSPI)

달러는 코스피의 흐름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락세로 접어든 코스피의 주가하락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현재 받고 있는 저항선은 16년 초에 형성한 고점구간 (1,192 ~ 1,207P)이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지선은 1,177 ~ 1,160P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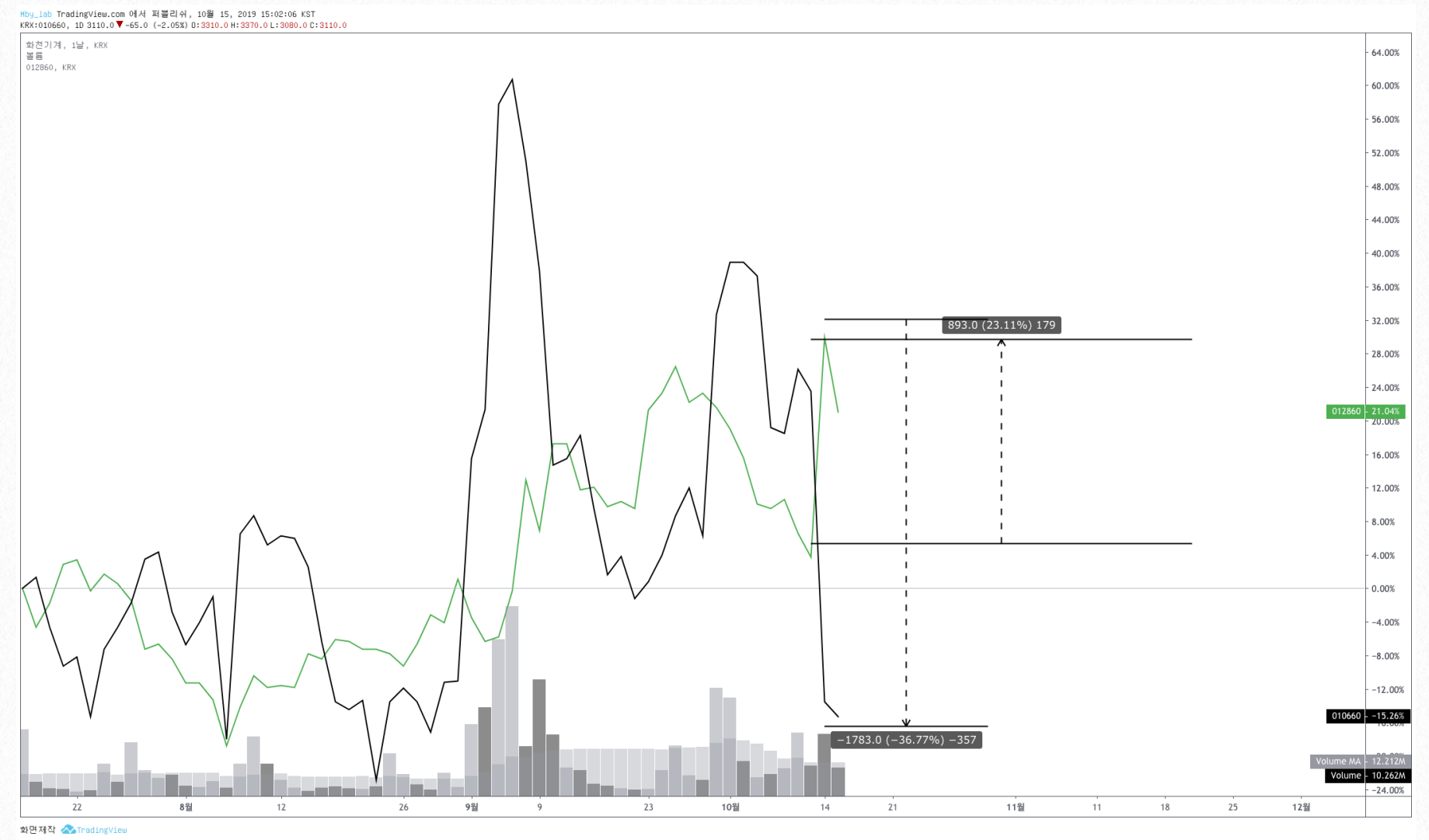
2. 엔 / 원화 (JPY / KRW), 코스피 (KOSPI)

엔화는 12년이후 지속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과 큰 간격의 이격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습은 코스피의 하락 %가 엔화의 환율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역전현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코스피가 현재의 하락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엔 달러환율은 코스피의 하락율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 파운드 / 원화 (GBP / KRW), 코스피 (KOSPI)

파운드는 2010년 9월 10일을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환율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와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동성 없이, 지속적인 EU와의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내 경제 이슈



- 1. 조국장관 사퇴에 따른 관련 테마주 폭락 (약 30%)
- 2. 하락 및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테마주 (약 20%)급등

평균 가격 변동성 (Price Volatility Index)

평균 가격 변동성 (Price Volatility Index)은 30일 동안 주가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넓은 분포로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입니다.

식 : $\text{cum}(\text{high} - \text{low}) / \text{hlc3} / \text{period}$

고가 - 저가 의 누적합을 평균과 기간(30일) 로 나눈 것으로 특정 기간동안 주가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넓은 분포로 변동성을 지녔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 할때 그 값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 폭은 주가 상승/하락 폭에 비례합니다.

관련된 용어집 용어

여기에 관련된 용어 드래그

인덱스

용어 찾기